

Dave Mathewson 박사, 해석학, 강의 20, 묵시론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신약성경의 서간 문헌이나 편지를 해석하고 읽는 또 다른 특징은 1세기, 특히 신약에서 더 넓은 범주의 편지나 서신의 가능성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위 유형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편지라는 더 넓은 범주의 우리 시대에도 가족에게 쓰는 편지는 회사에 쓰는 불만 편지나 자기 소개서에 쓰는 편지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 지원을 위해. 따라서 1세기에는 특정 신약성서의 편지와도 일치할 수 있는 여러 하위 유형의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바울이 쓴 가장 짧은 편지인 빌레몬서나 빌레몬서가 추천서나 추천서로 알려진 편지의 하위 유형과 매우 밀접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소개.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에 수반되는 것은 작가, 작가가 특정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것입니다. 종종 호의를 요청하고 포함하거나 의도하거나 수신자에게 호의를 보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즉, 빌레몬서를 읽어 보면 빌레몬이거나 바울이 또 다른 주인공인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는데, 저자는 바울인데 빌레몬이 주된 수신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이유는 오네시모가 도망쳤던 빌레몬의 종이더니 이제 바울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를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 추천서나 소개서를 써서 받는 사람인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또한 빌레몬에게 부탁하면서 빌레몬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읽은 빌레몬은 바울이 요청한 방식으로 응답해야 할 자신의 의무를 인식한 것 같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 빌립보서는 종종 가족 서한으로 분류되는데, 가족 서한으로 알려진 부분과 일치하는 특정 부분이 있고 일부 언어는 아마도 그것을 반영합니다.

두 개의 편지는 유언장으로 알려진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세기의 편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유언장인 실제 문학 장르는 죽어가는 영웅의 마지막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고 가족과 친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을 준비가 되었을 때 추종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지시였으며, 여기에는 권고와 때로는 종말론적 예언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아마도 유언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두 권의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는 베드로후서 1장이고 14절과 15절은 유언장의 언어, 즉 어떤 의미에서 임종한 베드로의 언어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가 이생을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그의 마지막 지시입니다. 이것은 13절부터 시작하여 추종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지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 몸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되새기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몸의 장막을 속히 폐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와 디모데후서 두 편지 모두 서신 형식의 유언장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개인들이 죽기 직전에 추종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지시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처형을 앞두고 일종의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유언서 형태의 편지, 죽어가는 영웅의 마지막 지시, 또는 바울과 베드로가 추종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지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나가기 직전. 서간문학과 관련된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저자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여담이지만 장르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는 방금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본으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서, 또는 제가 앞서 James Charlesworth가 쓴 구약 성서 Pseudepigrapha의 책을 언급한 경우, 그 책에서 여러분은 여러 성서 유형의 문학에 대한 영어 번역과 여러 성서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 인물이 자신의 죽음 이후 오랫동안 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또는 마치 이전 인물이 자신의 이름으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신약성경의 편지 중 일부가 가명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베드로후서나 디모데후서와 같은 신약성서의 몇몇 서신이 가명으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즉, 바울과 베드로가 죽은 후에 그들의 추종자 중 한 사람이 펜을 들고 그들의 이름으로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에 속는 사람도 없고, 베드로나 바울이 실제로 이 글을 썼다고 속는 사람도 없었겠지만, 문학적 장르에 따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썼다고 인식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1세기뿐만 아니라 신약의 저자들 사이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였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성경의 정경 내에서 허용 가능한 장치였을까요? 나는 우선 베드로후서가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름이 붙은 사람이 쓴 모든 편지의 저자에 대해 좋은 논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일부 기독교나 복음주의 학자들도 그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피터를 편지의 저자로 유지합니다.

그러나 둘째, 가명이 수용 가능한 정경적 장치였을지, 즉 특히 정경이 인식되고 형성되고 있었을 때, 신약성서 저자들 사이에서 인정된 수용 가능한 장치였을 것인지가 나에게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익명이었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졌을지, 그리고 그것이 허용 가능한 장치였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명, 즉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다시 실제 저자가 죽은 지

한참 뒤에 추종자나 제자가 펜을 들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썼다면, 우리는 이미 본 것처럼 저자가 Emanuensis 에서 발견된 모든 마지막 단어를 물리적으로 썼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거부합니다 . 그리고 이것은 때때로 문자 사이의 차이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이 다르고 언어와 문체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쓸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다른 Emanuensis 또는 때로는 Emanuensis , 즉 서기관이나 비서에게 편지를 받아쓰게 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 때로는 그들 중 일부에게 약간 더 많은 자유가 주어져 편지의 대부분을 작성했을 수도 있지만 저자는 여전히 그 편지에 서명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기록된 내용은 정확히 바울이나 베드로 또는 기록되기를 원한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서명하고 동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6장과 22절에서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더디오는 저자 또는 실제로 그 편지를 쓴 서기관이나 에 마누엔시스 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두 서신에서 매우 흥미로운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인 5장, 미안합니다, 6장의 한 예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11절에 6절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라. 그것이 전체 편지를 지칭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때때로 다른 고대 편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편지의 끝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저자가 서기관이나 Emanuensis 에게 편지를 받아쓸 때 저자는 종종 펜을 들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인사말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이르면 이제 바울이 직접 펜을 들고 마지막 인사를 쓰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서간문학은 주로 에마누엔시스(Emanuensis) 나 서기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되었는데, 이는 때때로 편지에서 발견되는 차이점 중 일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약성경의 편지들이 그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졌고, 그 편지들의 서문에 그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에게 의해 기록되었다는 가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서간 문학 해석하는 몇 가지 원칙을 살펴보기 전에 언급해야 할 또 다른 특징은 이미 수사적 접근 방식에 대한 주의와 우려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즉, 편지, 특히 바울의 편지를 수사적 연설의 예로 식별하는 것입니다. 심의 연설, 사법 연설, 전염병 연설. 유사점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 기능을 바울 서신의 특정 부분과 비교하는 데 가치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결코 수사적 논증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1세기의 수사적 연설을 취하여 신약성서의 편지에 적용하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대신, 다시 편지의 형식적인 특징을 볼 때, 저자가 스스로 남긴 단서를 볼 때, 신약성서 저자들은 다름 아닌, 아무리 다른 것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론이나 인사말, 감사, 본문, 결론 및 인사가 포함된 1세기 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임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울이 주로 수사적 연설이 아닌 1세기 편지를 썼다는 것에 대한 나의 토론이나 주장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을 함께 요약하고, 그러한 종류의 문학에서 나온 1세기 편지를 읽고 해석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이나 지침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1세기 편지를 해석하여 역사적 배경과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약성서의 편지가 초대 교회의 특정한 문제와 쟁점에 대한 응답으로 매우 가끔씩 작성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편지 자체와 1세기 상황에 대해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바울이 다루고 있거나 베드로가 말하고 있거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문제, 쟁점, 상황이 무엇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어떻게 보입니까?

둘째, 생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주목하기 위해 편지의 주장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러티브는 문장과 절이 어떻게 문장 수준과 절 수준뿐만 아니라 단락 수준에서도 논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섹션에서 섹션으로의 편지 인수.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 본문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이 과정이 끝날 무렵 로마서 6장과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좋은 예를 발견합니다. 텍스트의 주장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로마서 6장은 바울이 따르는 전형적인 질문-답변 형식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중에 말하겠지만, 종종 Paul은 자신이 방금 말한 것에 대해 잠재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6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으리이까? 그가 제기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이 바울이 이전에 말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독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능한 반대를 예상하는 바울의 방식일 뿐이지 반드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실제 반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마도 누군가가 가질 수 있는 반대, 특히 그의 독자가 가질 수 있는 반대를 제기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발전시키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6장을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느냐는 질문은 아마도 그가 5장, 20절과 21절, 즉 맨 마지막 두 장에서 했던 말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율법을 더한 것은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을 더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더욱 넘쳤나니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이나 가능한 질문은, 음, 20이 참이라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면, 은혜가 더욱 더해지도록 내가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제기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으리이까? 나머지 구절들, 즉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인 2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대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 대답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초기 폭발(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과
논리적 설명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 질문을 터무니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논증을 추적하고 논증의 흐름과 적합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속 세션에서 문학적 맥락의 문제를 살펴볼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장을 추적하고 내용을 요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저자가 자신의 주장과 요점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서간 문헌 해석에 있어서
세 번째 중요한 원칙은 다시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권면 의 일부인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읽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특히 저자가 뭔가를 확장하고 독특한 것을 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넷째, 당신의 편지가 아마도 추천서로 알려진 하위 장르에 속하는 빌레몬과 같은 하위 장르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서신을 해석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세 번째 문학적 장르, 아니 실제로는 세 번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신약에서 적어도 두세 가지 장르를 대표하는 세 번째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식별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첫 번째 독자들이 이 세 가지 모두를 명확하게 구분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의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문학적 유형은 묵시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언과 편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저자 자신은 자신의 일을 예언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는 바울 서신 중 하나와 똑같이 시작하고 끝나며, 또한 적합하며, 특히 4장부터 22장까지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묵시록이라고 이름 붙인 고대 글의 특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적어도 하나에 관한 것이며 현대 세계 에는 정확한 비유가 없습니다 . 즉, 우리는 편지에 익숙하고 편지를 쓰고 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앉아서 묵시록을 읽은 것이 언제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앉아서 누군가에게 묵시록을 쓴 것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장르 비평이나 문학 장르에 대한 이해는 여기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이 책에서는 오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문학 장르는 주로 우리가 책을 해석할 때 올바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장르 진입점 역할을 합니다. 비록 이것이 모든 해석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따라야 할 어려움, 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전개되는지, 일종의 내부 장르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는 대개 묵시록, 예언, 서한의 세 가지 장르를 주목하지 않고,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무엇인지 오해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종종 이 세 가지를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책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중적인 수준에서는 계시록이 온갖 이상한 일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의 시작점으로서 이 세 가지 문학 유형, 즉 세 가지 문학 장르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서신이나 편지로 읽히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맨 처음, 첫 장, 적어도 4절부터 읽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의 편지 중 하나를 읽는 것처럼 들립니다.

요한복음 4절에 저자의 식별이 있고 아시아 일곱 교회에 독자의 식별이 있음을 주목하라.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치 바울의 편지 중 하나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주목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것을 설정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인사하는 부분이 확대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보좌
앞의 일곱 영과 및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서간서의 서론, 즉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전형적인 편지처럼 끝나는 것을 주목하세요. 20절, 특히
21절로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신약성서의
편지가 끝나는 것을 찾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편지로 읽혀지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째, 저자가 예언을 쓰려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거나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 책의 첫 두 구절, 특히 3절을 주목하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22장에서 그는 다시 책의 끝, 책 끝의 종류, 책의 끝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예언으로 확인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를 무시하거나 불순종하지 말라고 경고할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고 또한 22장의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예언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책, 요한계시록은 편지의 시작과 끝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도 예언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1절의 1장은 또한 다른 유형의 문학을 기록하려는 요한의 의도를 나타냅니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또는 묵시록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주라고 주신 그리스어 단어 Apocalypse 또는 묵시록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의 종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이라

이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문학 장르의 종말에 대한 꼬리표를 얻습니다. 나는 요한이 여기에서 훨씬 나중에 나온 문학적 유형의 장르에 대한 명칭으로 계시나 묵시를 사용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은 이 책을

선지자들과 요한에게 보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부름으로써 이 책이 계시문학이라는 문학적 장르에 속하도록 의도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계시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 특히 4장부터 22장을 읽으면, 우리가 현재 묵시록 또는 묵시문학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글에 전형적인 특징 대부분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음을 잠시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학 장르의 종말을 조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실제로 그 이름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또는 묵시록에서 파생된 이 저작물 그룹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묵시록은 현대적인 레이블입니다.

John과 초기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라벨을 붙이기 위해 반드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유사점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일련의 저작물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학적 유형은 요한계시록이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종말론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묵시록은 대략 기원전 200년에서 서기 200년 사이에 생산된 일련의 저작물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다니엘, 구약의 다니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 등 의 작품 . 그건 그렇고, 내가 말하려는 내용의 대부분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니엘에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두 책은 동일한 문학적 특징을 공유하고 동일한 문학적 장르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 기원전 200년에서 서기 200년 사이에 구약성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다른 유대교 및 기독교 묵시록이 작성되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미 언급했듯이, James Charlesworth가 쓴 구약성서 Pseudepigrapha라는 두 권의 저서로 수집된 대부분의 문서에 대한 영어 번역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1권에는 이러한 묵시록 대부분에 대한 다양한 학자의 영어 번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는 더 쉬운 방법으로 Google에서 묵시록의 이름을 입력하면 온라인에서 영어 번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묵시록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환상적 경험이나 계시적 경험에 대한 서술적 설명, 1인칭 서술적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적인 경험을 한 후에, 이제 그들은 그들이 본 것에 대해 서술적인 설명이나 보고를 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환상적 경험은 꿈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실제 환상적인 운송수단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것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영에 의해 특정 장소로 이동되는 유체이탈 유형의 경험과 거의 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매우 흔한 것은 그들이 사물을 보고 이제 청중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비전을 위해 기록하는 일종의 비전 경험입니다. 환상은 대개 하늘 세계에 대한 환상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심판의 장소인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환상을 갖기도 합니다.

종종 이것은 종말론적인 종말 사건에 대한 환상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제가 접한 정의 중 가장 대중적이고 유용한 정의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책에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묵시 문학을 다루는 거의 모든 책에서는 이 정의를 인용하거나 적어도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출발점. 이것은 묵시문학에 많은 연구를 해온 존 콜린스(John Collins)라는 학자가 내린 정의였으며, 그는 묵시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묵시록은 계시가 다른 세상의 존재, 대개 천사에 의해 인간 수신자에게 중재되어 종말론적 구원을 구상하는 한 일시적이고 또 다른 초자연적 세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간적이다. 이제 이 정의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시록은 계시 문학의 한 장르로, 계시가 다른 세상의 존재, 즉 천사 같은 존재에 의해 중재되는 내러티브 틀 내에서 계시를 전달하는 문학으로, 종말론적 관점에서 일시적인 초월적 현실을 공개하는 인간 수신자에게 전달됩니다. 구원은 또 다른 초자연적 세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간적입니다. 그럼 이 정의를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이 인간 수신자에게 계시된 기록이라는 것을 이 정의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수신자는 우리의 경우 요한이 될 것이지만, 주로 비전을 통해 계시적 경험을 하고 현재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묵시록의 저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해당 계정에 대한 서술이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그러므로 묵시문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사문학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이 계시를 통해 경험하고 본 것, 이 계시적인 경험에 대한 서술이다. 이 정의의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이 계시가 주로 초월적인 관점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로 현재의 눈에 보이는 지상 세계를 초월하는 무언가에 대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세상 밖 경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저자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중요하지 않으며 그것은 일종의 천상의 현실과 천상의 존재로의 도피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와 현실의 계시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이 초월적인 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적절한 방법은 그것을 그 사람에게 드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묵시록은 초월적인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독자, 선견자, 인간 수신자에게 이 초월적 현실을 열어줌으로써 초월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는 그들이 경험하는 물리적인 지상 현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던지기 위한 것입니다. 살다.

따라서 그것은 탈출 수단이 아니라 이 초월적인 현실,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이 초월적인 관점에 비추어 이해될 수 있도록 그들의 물리적 세계를 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초자연적 존재, 또 다른 세속적 존재를 통한 계시와 환상적 경험을 제외하고는 인간 수신자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초월적인 관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 정의에서 그것은 종종 일시적인 것입니다. 즉, 종말론이나 세상의 종말을 가리킨다. 즉, 시간을 초월한 비전입니다.

종말론적 종말을 시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그들의 시간을 넘어서지만 다섯 번째로 공간적이라는 점에서 공간적이기도 하다. 즉 초월적인 관점인 비전은 대개 천상의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인간의 지각만으로는 볼 수 없는 천국의 현실, 천국의 세계를 다시 소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간적, 공간적 종말이 단순히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우리는 미래의 사건에 관해 계시록이나 다니엘과 같은 책을 읽었지만 그것은 또한 다른 현실, 다른 관점, 천국의 세계, 현실과 삶에 대한 다른 관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묵시문학의 정의에 제가 추가하고 싶은 두 가지 사실은 무엇보다도 시간적으로, 미래에 관한 것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천상 세계에 관한 초월적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전달되고 표현됩니다.

묵시록을 읽을 때 당신이 아는 것 중 하나는 그들이 매우 생생한 이미지를 통해 어떻게 소통하는지입니다. 종종 그들은 동물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종종 그들은 때로는 동물과 인간의 사물, 때로는 다소 기괴한 상징을 드러내는 다른 사물의 조합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역시 주로 전달하며, 아마도 다른 묵시록보다 계시록에서 훨씬 더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하는 특징 중 하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는 상징의 양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요한계시록 9장인데, 8장과 9장은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것에 대한 저자의 환상에 대한 계시록의 설명이며, 각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9장에서 저자가 이상하게 보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다섯 번째 대접으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혹은 유감스럽게도 다섯 번째 나팔입니다.

나에게는 트럼펫과 대접이 있습니다. 그릇은 나중에 나오네요. 이것이 트럼펫입니다.

9장에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불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메뚜기 떼가 나옵니다. 그가 이 메뚜기 떼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상징주의와 이미지의 그래픽적 특성,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일종의 방식으로 상징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처음 독자들에게는 그다지 이상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상합니다. 그런데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더라.

그 별은 심연의 통로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열자 그 속에서 큰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연기가 나왔습니다. 해와 하늘이 무저갱의 연기로 어두워지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에 내려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땅의 풀이나 풀이나 나무는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셨다. 그들을 죽일 권세는 주어지지 않았고 단지 5개월 동안만 고문을 가할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5개월은 1세기 당시 메뚜기의 일반적인 생활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고통은 전갈이 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전갈과 같이 사람을 해하고 쏘는 메뚜기니라. 그것들이 설명되기 시작하는 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메뚜기 떼는 전쟁을 위해 준비된 말처럼 보입니다.

이제 말처럼 보이는 메뚜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자의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철 흉갑 같은 흉갑을 가졌고, 그 날개 소리는 많은 말과 병거가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전갈처럼 쏘는 꼬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꼬리 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을 괴롭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무저갱의 천사였습니다. 여기 요한이 메뚜기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실히 메뚜기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전갈처럼 쏘고 해를 끼칠 수 있는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관을 쓴 인간과 같은 머리와 남자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여자와 같은 머리카락과 사자와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은, 존이 보고 있는 이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가 환상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 논의의 이 단계에서 나의 요점은 단순히 그래픽 상징과 상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요한이 그의 환상에서 보는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 종말론적 미래의 초월적 현실, 시간적, 천상의 세계가 매우 상징적인 언어로 전달됩니다.

이 정의에 두 번째로 추가하고 싶은 것은 기능에 대한 강조입니다. 묵시록의 기능은 이러한 초월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권고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초월적인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묵시록은 독자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살기를 원하시는 방식에 일치하도록 그들을 권고하는 역할도 합니다. 즉, 묵시록은 단지 미래와 천국에 대한 추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묵시록이 그 일부와 관련될 수도 있지만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권고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권고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초월적인 관점에 대한 아이디어와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록이 하는 일을 조금 더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묵시록이 하는 일은 이 새롭고 초월적인 관점에 현재를 여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과 다른 묵시록은 단지 환상 문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탈출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독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천상의 대안적인 판타지 세계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이 세계를 탈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대신 독자들이 현재의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독자들이 자신의 경험적 세계를 내다본 만큼, 많은 묵시록이 그랬고, 예상된 만큼의 묵시록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종종 외국 지배의 상황에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외국 지배에 의해 억압을 받았거나 어쩌면 그들 중 일부는 엘리트였으며 외국의 영향력과 외국의 통치에 타협하고 참여했습니다. 종말이 한 것은 그들의 경험 세계에 다른 관점을 던진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내다봤을 때, 종말이 말한 것은 사물이 보이는 것과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국의 통치 하에 있는 물리적 세계에서 눈으로 보는 것, 그들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당신이 보는 것은 단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종말이란 무엇인가, 당신이 보는 것 너머에 있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과 관련이 있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며, 당신이 그것을 보고 반응하고 새로운 빛 속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직 알 수 있는 계시, 혹은 미안하지만, 신성한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현실, 관점입니다. 따라서 묵시록은 저자나 독자가 현재 세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형성하는 미래와 천상의 세계에 대한 초월적인 현실을 드러냅니다.

경험적으로 보고 경험적으로 경험하는 현재 세계를 열어줌으로써 초월적인
관점, 그 배후에 있지만 영향을 미치는 천상의 현실, 그리고 독자가 자신의
현재를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미래에 열어줌으로써 빛. 나는 종종 이것을
연극을 보는 것에 비유한다. 학교에서든 전문적으로 하는 공연이든 연극이나
공연을 본 적이 있다면 대개 무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배우들이 연기하고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봅니다.
때때로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연극을 작동시키는 커튼 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니저와 무대 감독도 볼 수 없고, 조명 작업을 하는 기술자도 볼 수
없으며, 이 연극을 작동시키기 위해 일하는 소품 담당자와 의상 담당자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연극뿐입니다. 무대 뒤의 무대 뒤를 볼 수 있도록 커튼을
건어낸다면, 그 작품을 만드는 모든 것과 그 연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극은 그 자체로 이해될 수 있지만, 연극을
작동시키고 실현하게 된 작업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묵시록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것은 역사와 지상의 현실 뒤에
있는 장막을 들어올려 당신을 하늘의 현실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미래에 노출시킵니다. 오직 신성한 계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하늘

세계와 미래에 대한 지식을 통해 독자들은 이제 자신의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경험적으로 그들이 세상에서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뒤에는 그들이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도록 돕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모두 이교 환경과 이교 제국 아래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투쟁의 맥락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억압의 대상이 되어 고통을 받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타협하고 이교 지배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교도 제국과 체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하는 일은 초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독자가 하늘의 현실과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인식을 열어 그들이 현재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pocalypse가 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로마가 지배하는 1세기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1세기에 살고 있는 독자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경험적으로 내다볼 때, 그들은 왕좌에 앉은 황제를 보고, 로마의 지배를 보고, 로마가 세상을 위해 행한 모든 좋은 일들을 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다른 관점을 보여 주겠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천상적이고 종말론적인 관점을 제공하여 당신이 그것에 반응하고 새로운 빛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을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문학적 특징인 예언으로서 우리는 구약의 예언과

관련하여 예언 문학을 논의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요한은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와 같은 구약의 과거 예언의 전통과 그에 맞춰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들의 글을 많이 채택하여 이제는 그것을 활용하고 자신의 작품에 통합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으로서의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예언 본문과 마찬가지로 주로 예언하거나 앞으로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언으로서의 요한계시록은 현대 독자들에게 그들의 상황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결과가 어떠하든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계시록에 대한 모든 접근은 그 문학적 유형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이다.

즉, 결과가 어떠하든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상황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것은 역사에 뿌리를 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환상 문학이 아니지만, 이 천상의 관점에서 상징적 언어에 뿌리를 두고 있더라도 여전히 주어진 역사적 맥락과 역사적 상황에서 독자의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1세기의 실제 사건, 실제 인물, 실제 장소를 언급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언급할 것이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상징적으로나 은유적으로 묘사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도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편지처럼 시작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바울의 편지 중 하나처럼 끝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아마도 저자는 소아시아와 1세기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바울 서신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1세기 교회에서 바울 서신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아마도 저자는 어떤 의미에서 바울을 모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 그의 편지 형식으로.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편지로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것을 편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바울의 다른 편지들만큼 간헐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이 편지를 쓰게 된 역사적 맥락과 역사적 문화적 배경, 즉 이 묵시록이 독자들에게 기록될 묵시록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에 비추어 읽어야 하며, 바울의 서신과 베드로의 서신이 그러했듯이 요한계시록도 1세기의 매우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는 야고보의 편지만큼.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원래 역사적 맥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특징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지침이 되어야 하는 문학 장르에서 발생하는 원리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려는 것의 대부분은 유일한 다른 정식 묵시록에도 적용됩니다. 다니엘서이다. 그건 그렇고, 다시 한 번 제쳐두고 강의 전반에 걸쳐 이런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다른 하나를 제외하고 신구약에는 묵시록을 포함하는 다른 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독자의 실제 환상적 경험을 기록한 유일한 참된 묵시록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같은 다른 곳이나 묵시적이라고 불리는 다른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 언어나 묵시적 유형의 언어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저자의 환상적 경험을 실제로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는 아마도 묵시록과 가장 분명하게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또 다른 본문입니다. 특히 저자의 환상적 경험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40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자신은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에스겔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려는 내용의 대부분은 다니엘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만 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인 문학 유형에서 분명히 드러난다고 생각되는 첫 번째 점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상징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이 그러하고 다니엘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했듯이 계시록은 실제 사건과 실제 인물을 언급합니다.

이 책은 1세기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독자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에, 특히 역사의 마무리인 종말론적 미래에 일어날 실제 사건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묘사할 때에는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묘사한다. 문자 그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은 CNN 뉴스 다큐멘터리나 일부 세계 사건에 대한 BBC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그림이나 예술적 인상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계시록 역시 상징적으로 전달됩니다. 실제 사건을 지칭하지만 문자 그대로의 사건이 아닌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 그 사건을 지칭한다.

아마도 요한계시록에 가장 가까운 비유, 현대의 비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저에게 독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 작품에서 찾았지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을 정치 만화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정치 만화, 정치 만화는 실제 역사적 사건, 정치적 사건, 인물에 대한 논평이며 언급합니다. 그러나 정치 만화를 읽으면 그래픽 기호와 이미지를 사용하고 때로는 요점을 전달하기 위해 과장과 캐리커처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문단의 산문, 정치적 상황에 대한 설명, 직설적인 설명보다는 정치 만화가 정치 상황에 대한 특정 관점을 전달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때로는 이미지가 균일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미지가 의미하는 바를 아는 스톡 이미지일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미국에서는 미국과 그 정치 체제의 맥락에서 정치 만화를 읽고 독수리를 본다면 그것이 미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나귀나 코끼리를 본다면 이는 문자 그대로의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정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 만화에서 실제 인물이 묘사될 때에도 종종 과장되고 희화화되어 요점을 파악하고 그들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만화의 요점은 실제 역사적 사건,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언급하는 반면, 작가는 이를 고도로 생생하고 상징적인 언어로 설명함으로써 여러분이 요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

그것이 바로 계시가 하는 일입니다. 계시록은 정치 만화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건, 독자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논평이지만 독자가

요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매우 생생하고 상징적인 언어로 묘사합니다. 상황에 새로운 빛을 비추고 지적으로뿐만 아니라 미학적, 감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합니다. 나는 자랐기 때문에 계시는 상징적으로 전달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계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자랐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문학적 계시의 종류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계시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상징주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상징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상징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와 그림을 제시할 것입니다.